



[산업]  
지방선거·월드컵  
대목 만난 이통·케이블  
12

[금융]  
이주열 한은 총재  
“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”  
Life 13



## ‘세기의 회담’ 어색한 첫 만남부터 역사적 합의 서명까지



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.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북한 리용호 외무상,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(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), 김정은 국무위원장, 김주성 통역관,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, 미국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, 이연향 통역국장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,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,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.



- ①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.
- ②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.
- ③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업무오찬을 한 뒤 산책하고 있다.
- ④ 12일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뉴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.
- 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역을 맡은 김주성 통역관(왼쪽)이 단독회담장으로 향하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을 하고 있다.
- 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 오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.

/사진=연합뉴스, 싱가포르 통신정보부

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(오른쪽)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위해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.